



Since 200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T.02-734-3924, F.02-723-9995, civic21@kornet.net www.civilnet.net

문서번호 03-0922-0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문화면 담당 기자님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강진영 02-734-3924)
제 목 '제1회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사례 공모' 수상작 보도요청의 건
날 짜 2003년 9월 22일(월), 총9쪽

보도협조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풀뿌리 지역시민운동의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격려하고자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제1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약칭: 제1회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3. 보고서 형태로 공모한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6월 10일~9월 5일)에는 총 25편의 사례보고서가 응모 되었으며, 이 중 풀뿌리 시민운동의 모범이 되는 7개의 사례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상내역 첨부자료 참조)
4. 응모된 사례들은 추후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연대회의 홈페이지(www.civilnet.net)에 게재됩니다. 또한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며, 응모된 모든 사례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운동의 귀중한 자료로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5.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는 '제3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가 열리는 목포청소년수련관에서, 9월 25일(목) 오전 9시부터 열립니다.
6.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소중한 활동성과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7. 연대회의는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354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협의체입니다.
8. 감사합니다.

*붙임: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 개요 및 선정작 소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경린, 송보경, 이인식, 이오경숙, 최 열
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상임), 김상희, 김종현
(직인생략)

<붙임>

제1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사례 공모

풀뿌리 시민운동을 조명한다!
시민운동의 창의적 사례를 시민사회 전체가 공유.소통한다!
현장 활동가들이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다!

•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후원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 취지

오늘날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은 전국 각지에서 인내와 희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온 시민과 시민운동가의 땀의 결실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민주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지역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9개 지역 연대회의는 풀뿌리 지역시민운동의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사례’를 공모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의 발전과 성장을 돕고, 헌신적이며 창의적으로 지역 시민운동을 발전시켜온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며, 응모한 모든 사례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운동의 귀중한 자료로 축적해 갈 것입니다. 풀뿌리 시민단체의 활동과 경험, 지혜를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좋은 사례 공모’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원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 공모사업 운영위원회

◦ 공동운영위원장

이인식 (경남연대회의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이시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푸른부천만들기21 상임의장)
- 심사위원
김태현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 교수)
김 현 (시민자치정책센터 상근 운영위원)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윤정은 (녹색연합 공동대표, 서울여대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 시장내역

- | | |
|---------------------------|--------------|
| ○ 풀뿌리상 1편 | 상금 3백만원 및 상패 |
| ○ 풀잎상, 풀대상, 풀꽃상, 풀씨상 각 1편 | 상금 1백만원 및 상패 |
| ○ 특별상 2편 | 상금 1백만원 및 상패 |

- 선정과정

- 응모기간 2003년 6월 10일 ~ 9월 5일
- 응모작 총 25편
- 심사 9월 9일 ~ 9월 18일
 - 1, 2차 심사 : 심사위원 개별 서류심사 / 3차 심사 :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심사기준

- 활용성(타단체.타지역 활용 가능성) 및 운동의 가치
- 지역사회 기여도(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및 시민 참여도
- 지속가능성(활동 사례의 발전 가능성)
- 독창성 및 고유성(활동 내용 및 방식의 창의성, 다양성)
- 심사위원 소견 및 총평

• 선정작

- 풀뿌리상
주민참여형 삶터 가꾸기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
- 풀잎상
주민과 함께 한 문화유적 보존 시민운동-‘시흥 오이도 유적’ 보존운동을 중심으로
- 풀꽃상
협동과 자치에 기초한 생명의 도시 만들기-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풀대상
시민과 함께 한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의 녹지조성 및 관리
- 풀씨상
서울동북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여성운동
- 특별상
성수동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일명 성수동 사업
순천시민단체의 순천시 행정.의정 감시활동

• 수상작 소개

풀뿌리상	주민참여형 삶터 가꾸기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
내용	<p>이 사례는 도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인 놀이터를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이다.</p> <p>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는 2000년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3동에 위치한 한빛놀이터를 대상으로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빛놀이터에서 단오잔치, 백중잔치, 가족영화제, 어린이 성교육을 위한 부모강좌, 놀이터에 생명심기(화단에 꽃심기), 놀이터 출입구의 턱을 낮추는 시설보수공사 등을 진행했다.</p> <p>이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주민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됐고, 2001년에는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모임 ‘토박이’가 결성됐다. 이후 주민모임 토박이는 마을신문 ‘우리동네 사람들’을 발행하고 있으며,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와 함께 연 4회 정기적인 마을축제도 기획.진행하고 있다.</p> <p>토박이는 또한, 놀이터 안에 버려진 방범초소를 없애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 2002년 3월 ‘놀이터 사랑방’을 만들었다. 놀이터 사랑방은 평상시 저녁엔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낮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방과 양호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박이 회원들을 중심으로 부모역할훈련, 그림책만들기 교실, 영어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p>
작성자	박운정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간사 / 02-987-2304

풀잎상	주민과 함께 한 문화유적 보존 시민운동-‘시흥 오이도 유적’ 보존운동을 중심으로
내용	섬 전체가 패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패총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시흥 오이도. 시흥 지역의 시민단체들(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오이도어촌계 등)과 오이도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오이도의 문화유적을 지켜낸 활동 보고서이다. 2000년 4월 시작된 이 투쟁은 2002년 4월 문화재청에서 ‘시흥 오이도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일단락을 맺는다. 이후, 시민단체들과 오이도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이도 유적 문화답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작성자	김상신 시흥YMCA 총무 / 031-315-4310

풀대상	시민과 함께 한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의 녹지조성 및 관리
내용	이 사례는 생명의 상징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운동을 해 나간 사례이다. 96년, 분당시 맹산에 사립학교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측과 '학교이전으로 집 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자체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녹지를 지켜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녹지훼손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이 장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어린이환경학교를 맹산에서 실시하였고, 97년 11월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를 정식으로 개설해 자연생태교육을 강화하여 8주단위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작성자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운영위원장 / 031-702-5610

풀꽃상	협동과 자치에 기초한 생명의 도시 만들기-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내용	72년 시작된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을 바탕으로, 최근 창립한 (2003년 6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원주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등 8개 단체)이 생명사상에 기초해 서로 연대하고, 자치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성자	최혁진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033-745-7572

풀씨상	서울동북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여성운동
내용	이 사례는 단위사업보다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의 10년 활동 전체를 정리한 사례이다. 생활협동조합운동(생협매장운영), 교육사업(민우여성학교), 환경운동(소각장대책활동, 음식물생쓰레기 퇴비화운동, 초안산골프연습장 반대운동), 지방자치운동(지방의회 방청 및 의회진출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위한 활동,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 활동경과, 성과 등이 소개돼 있다. 지역 주민들과 밀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동북여성민우회가 위치한 노원구, 도봉구의 행정동은 시민단체 가입률이 해당 지역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작성자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기획위원장 / 02-3492-7140

특별상	성수동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일명 성수동 사업
내용	성수동은 서울에서는 드문 준공업지역으로 제화, 인쇄 공장을 비롯해 약 1,350개의 작은 공장들이 있다. 이 지역은 저소득노동자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 지역이기도 하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지역제화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성동건강복지센터의 활동가 및 조합원들로 구성된 ‘성수동식구들’은 2002년 10월 첫 모임을 갖은 뒤, 영세사업장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공장)과 몸(신체)을 되돌아보는 ‘게시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간사 / 02-2269-3891

특별상	순천시민단체의 순천시 행정.의정 감시활동
내용	순천시는 지방자치 1,2기 과정에서 시장모두가 관급공사 및 수의계약과정에서 뇌물수수 명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의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아래 해외연수비를 시의회 의장이 유용하는 것은 물론 사치성 해외연수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순천경실련,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 등 순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은 2000년부터 순천시 행정.의정 감시활동을 펼쳐 2000년 ‘해외연수관련 조례제정, 시의원 사용 일비조례제정’의 성과를 거뒀다. 2002년에는 순천시 공무원 스스로가 5백만원 이상의 구매 및 공사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순천 시민단체의 행정.의정감시활동은 ‘예산감시→정보공개청구→상시적 행정의정 활동 감시→행정 사무감사→예산감시’로 이어지는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모범사례이다.
작성자	이상석 순천YMCA 부장 / 061-755-6296

지역사회의 생명활동으로서의 풀뿌리운동의 사례들

심사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

19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민주화운동은 사회부문에 서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전, 전개되어,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참여민주주의운동 등 다양한 시민 사회운동을 일으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때 어떤 정당보다도 인기를 얻었고, 시민사회단체의 뭉쳐진 힘으로 부패정치인을 추방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부패방지법, 금융실명제법 등 개혁 입법을 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간부들은 정부에 들어가 개혁세력의 일부를 이루어 정부 내에서도 개혁추진에 힘을 모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조직의 비대화, 관료제화, 시민참가의 저조, 언론플레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비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풀뿌리운동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조직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언론을 상대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풀뿌리운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운동의 성격에 따라 조직, 참가자, 지역성 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판의 대극에 서 있는 사회운동의 이미지가 바로 풀뿌리지역시민운동이다.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가운데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동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이름 없는' 지도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서 어렵사리 운동을 성공시킨 경우가 많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운동이지만, 이익집단에 맞서 지역에서 시민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지역시민운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생명활동의 징표이며, 우리사회의 민주화, 성숙화의 기관차들이다.

그래서 이번의 사례공모에서 심사자들이 설정한 기준은 이러한 운동이 갖는 활용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참여도, 그리고 운동단체로서의 지속성, 그리고 독창성 및 고유성이었다. 지역의 이익집단 활동이나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운동사례는 시민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위원들은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제1회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에는 총 25편이 응모됐다. 그 가운데 형식적인 기준미달, 접수기일이 지난 것, 지역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21편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다. 2차 심사과정에서 최종 심사대상에 오른 것은 11사례이었다.

최종심사대상에 오른 11사례는 모두 좋은 운동사례들로서 널리 소개되어야 할 것이지만, 풀뿌리상, 풀잎상, 풀꽃상, 풀대상, 풀씨상 등 다섯 개의 수상사례와, 그밖에 특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두개의 사례를 특별상으로 선정하였다.

풀뿌리상을 받은 “주민참여형 삶터가꾸기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는 지역시민운동이 지역의 생활시설(공원, 놀이터 등)을 어떻게 시민생활의 중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작은 공원이나 놀이터가 지역의 어린이, 노인, 주부들의 중요한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또 특정집단이 독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시민단체는 이러한 시

설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운동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사회의 자연이나 역사유산을 지키려는 운동도 많았다. 지역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 반딧불이 자연학교운동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지역환경지킴이의 모범이 될만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으며, 패총이라는 문화유산을 지역시민단체(경기도 시흥시)들이 힘을 합하여, 거대한 기업, 대학과 맞서 지켜낸 사례도 매우 돋보였다.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지역문화유적을 갖고 있고, 이를 지역시민들이 지켜내는 일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 동북여성민우회나 원주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비교적 알려진 운동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전국조직에 속해 있거나 일상적인 생활협동조합의 하나로 간주되기 쉬우나, 운동의 내용을 보면 지역운동의 모범될 만하다고 생각되어 선정되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비롯하여, 풀뿌리 지역정치운동 참가 등 우리나라 지역운동에 있어서 좋은 수범사례들을 다수 만들어 내었다. 또 원주생활협동조합도 생협을 단순히 경제기구로 간주하기보다는 대안사회의 모델로서 생활개혁운동의 모체로서 이를 성장시키고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운동의 기관차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에는 이와 같은 생활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힘있는 시민단체가 있어야 한다.

특별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노동운동으로서 성수동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선정하였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노동보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성수동과 같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에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순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순천시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한 사례도 매우 좋은 모델이다. 지방자치의 재실시된지 이미 10년을 넘었지만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행정이나 의회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더욱 파행과 부조리로 치닫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책임은 여전히 시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러한 행정감시, 의정감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운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수상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아쉬운 운동사례도 많았다. 예컨대 서울 마포에서 서울시가 배수시설을 성미산에 만들고자 하였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지역의 산, 성미산을 지키려 쫓겨나 있었다. 참가자의 수도 많았고, 힘찬 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과연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회의를 끝내고 심사위원들은 제2차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사례 공모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 사례 공모에 있어서 운동단체의 평가, 운동사례의 평가, 운동가의 평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동단체의 역사가 길면 자연히 많은 사례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사례와 운동단체의 평가를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운동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운동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운동사례를 중심으로 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2) 풀뿌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조직을 가진 사회단체도 풀뿌리로 보느냐라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중앙조직에서 운동지침이 내려와 그것이 운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풀뿌리운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지역의 연합조직운동의 경우에도 과연 이 운동이 특정한 과제를 넘어서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공모심사에서는 조직의 측면보다 운동내용의 측면에서의 '풀뿌리성'에 주목하였다.

(3) 심사과정에서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작은 시민단체들에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운동은 운동의 역사기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역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모사례와 같이 우리는 지역사회운동에서 많은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다수의 지역사회운동은 진부한 방식과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 지역의 다른 운동들을 서로 배우고 널리 알리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